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Walter Block

Debunking All the Main Arguments for Antitrust Laws

11 March, 2024

저가 항공사의 합병 블루스

바이든 행정부의 제트블루(JetBlue)와 스피릿에어라인(Spirit Airlines) 간의 합병 반대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스피릿에어라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제트블루의 인수 제안은 이 항공사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회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병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독점 법의 이름 아래 거부되었다.

합병이 성사되었다면 제트블루와 스피릿에어라인의 시장 점유율은 10.5%에 그쳐, 업계에서 다섯 번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빅포(big four)'인 델타(Delta), 아메리칸(American), 사우스웨스트(Southwest), 유나이티드(United)가 각각 17%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 합병이 대형 항공사들의 시장 지배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현 상태의 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반독점 법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실행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실제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고객 만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업 간의 합병은 종종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혁신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

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반독점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저지되는 경우, 이러한 이점들이 실현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결국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선택지를 잃게 된다.

이렇듯 반독점 법은 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억제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결정들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전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독점 법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실제로 경쟁을 저해하는 합병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 전반에 걸쳐 더 나은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며, 경제 전체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반독점 법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번역: 심지후

출처: <https://fee.org/articles/debunking-all-the-main-arguments-for-antitrust-laws>